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20:23 (1,1,1,3)

앞 부분의 줄거리 :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의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궤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 “비록 우리 소국의 궤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궤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궤문을 부수게 한 언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궤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별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구조도

※ 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20번과 2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	사건	장애물	해결 수단
신라 이전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중국으로 가다.		
↓			
낙양 성문	어떤 학사와 수수께끼 대결을 하다.	수수께끼 ↔ 수수께끼	
↓			
궐문	궐문을 부수게 하다.	궐문 ↔ ㄱ	
↓			
삼문(三門)	구덩이 안 악공들을 제압하다.	음악 소리 ↔ ㄴ	
↓			
사문(四門)	코끼리의 위협을 막아 내다.	흰 코끼리 ↔ ㄷ	
↓			
오문(五門)	학사들의 질문을 물리치다.	질문 ↔ ㄹ	
↓			
황제 이전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다.		

1. 해결 수단의 ㄱ~ㄹ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ㄱ	ㄴ	ㄷ	ㄹ
① 50자 모자	구렁이	누런 별	시	
② 50자 모자	누런 별	시	용상	
③ 구렁이	악공	50자 모자	누런 별	
④ 구렁이	50자 모자	용상	시	
⑤ 누런 별	악공	용상	구렁이	

2.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② 대국에 대한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③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다.
- ④ 학식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 ⑤ 개인이 부당한 위협에 맞서 가는 과정이다.

3.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기한 계책은 천분을 환히 알고	神策究天文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만족할 줄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知足願云止
-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 ①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②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 ③ 체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웅적인 기개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4.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과 ㉡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는 열등감을, ㉡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 ② ㉠는 보호의 효과가, ㉡는 은폐의 효과가 있다.
- ③ ㉠는 시험의 의미를, ㉡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 ④ ㉠는 상대에 대한 포용을, ㉡는 회유를 뜻한다.
- ⑤ ㉠는 상대에 대한 위협을, ㉡는 용서를 뜻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41:45 (4,3,3,4,1)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푸루 날아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얼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기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나?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저거려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붙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락 한때로구나, 소텅 소텅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빼죽 입빼죽 저 빼죽새.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가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쭈국 쭈쭈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품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른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반오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탱기령 배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탱기령 배고, ㉣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사(軍師).

구조도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들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재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튿날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던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 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뎡(솔뎡경)’이나 ‘솔이 텡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쭉새가 ‘입삐쭉 입삐쭉’ 하고 우는 것은 ‘삐쭉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외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외’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쑥 쑥쑥’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27:30 (2,3,4,1)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 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나?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다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속속\*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

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까.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봉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속속: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구조도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위 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무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말은 바 소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4. 독자의 입장에서 ㉤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수능 47:50 (2,5,1,4)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심욕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삼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덕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모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전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계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운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변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醵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전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구조도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해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경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

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4.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37:43 (4,1,4,1,2,5,3)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별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  
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  
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  
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일이 날아간다. 유위전  
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  
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  
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  
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  
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  
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  
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  
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  
던이 있고 밭을 췌는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  
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 ㉠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  
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A]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되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B]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져 말씀 흥가.

[C]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제(玩樂齋) 소쇄(瀟灑)하니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널리 뜨슴 흥고.

[D] 청산(靑山)은 옛제 하니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 하니 주야(晝夜)에 긋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이니라.

[E] 우부(愚夫)도 알며 하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하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구조도

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현상에 얽매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4. (나)의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跋文)을 써 준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지훈의 글에 부처

나의 제자인 지훈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오랫동안 왕래가 소원하던 중 자신이 지은 글을 한 편 가져와 나에게 발문(跋文)을 청하기에 읽어 보니, 내용과 뜻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1. [ ]
2. 아마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금 나는 늙어 향리로 돌아와 한가롭게 살고 있지만, 제자의 깊은 뜻이 담긴 글을 틈틈이 대하며 소일거리로 삼겠노라.

갑신년 늦가을에 도산 노인 쓰다.

- ① 세상살이에 변화와 굴곡(屈曲)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②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 ③ 홀몸이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리 곤궁(困窮)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④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쫓아가되, 즐김과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삶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하나 지훈은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志操)를 잃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후세들도 그 성정(性情)을 따르기를 바란다.

5.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문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6. (가)의 내용으로 볼 때,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 ②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 ③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
- ④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
- ⑤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

7.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물로 보이고, [D]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로 보여.
- ②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 ③ [C]의 ‘낙사(樂事) | 무궁(無窮)’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있고 학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 ④ [D]에서 말하는 ‘그치지 마라’의 내용은 [C]의 ‘만권생애(萬畵生涯)’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
- ⑤ [E]의 ‘우부(愚夫)도 알며 허거니’는 [B]의 중장처럼 누구나 ‘어진 인성(人性)’을 지니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8.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덕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등에 일 업슨 너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그러라.  
- 성혼 -
- ③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혼노라.  
- 윤선도, 「만흥 1」 -
- ④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 혼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달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못 볼 것가.  
- 정극인, 「상춘곡」 -
- ⑤ 그울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였거든 병(甁)의라 담겨서라.  
빈곤(貧困) 혼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 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논가.  
- 박인로, 「누항사」 -

9.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라일을 꾀지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51:56 (2,1,4,5,4,3)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될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입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달[ ]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 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흠어지고  
공산 축루(空山鬪樓)\*같이 입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입의 귀에 들리거나  
운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입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입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입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插)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어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똥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 그리하여 지나긴 겨울 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지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는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지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삽한즉: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구조도

<p>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li> <li>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li> <li>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li> <li>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li> <li>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li> </ul> <p>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li> <li>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li> <li>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li> <li>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li> <li>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li> </ul> <p>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li> <li>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li> <li>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li> <li>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li> <li>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li> </ul>	<p>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육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li> <li>② ‘공산 축무’,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li> <li>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li> <li>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li> <li>⑤ ‘침번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li> </ul> <p>5.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li> <li>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li> <li>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li> <li>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li> <li>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li> </ul> <p>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li> <li>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li> <li>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li> <li>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li> <li>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li> </ul>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37:39 (3,5,3)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물러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랐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쥐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쟁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큰 소리여? (㉢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 니, 큰 소리여? 영?

연철 (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며? 영?

연철 (치절하게) 빛에 짝 잤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 나 남고……. (절규하듯) 큰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뿔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전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부서 폐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쥐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안!

임제순 곰치!

곰치 (넋 빼고 서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떨쩍 뛰며) 웬따!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애절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뺏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며!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빛 갓지람너!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세요! 제발!

임제순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먼!

- 천승세, 「만선」 -

구조도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배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배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수능 37:39 (1,2,3)

**#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겁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글 웃고) ……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뵈 가족이 고기를 썰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 95. 불이의 집**

㉠ 광장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있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 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접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

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 96. 고급 댄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모양새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구조도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희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희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2.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3,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치를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15:19 (5,4,2,5,3)

(가) 달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A] **찾길** 이 뇌이기 전  
노루 뱃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짜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반진고리’의 방언.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나)

- ①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 ②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 ③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  
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 ④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⑤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  
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구조도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실감 나게 그려져 있다.

2. ㉠~㉣ 중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1점]

—<보 기>—

(가)의 ‘찾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신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찾길’은 이 시의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발표 연도: 1938년  
 •작가 소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②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4. [A]를 <보기>와 같이 희곡으로 구성할 때, 시의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않은 대사는?

—<보 기>—

털보네 안방  
 (갓 출산한 털보 처와 산파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파**: 아들이야. 애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먼.  
 ㉠ **털보 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마을 빨래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1**: 털보네, 아들 낳았다면서요?  
 ㉡ **아주머니 2**: 그러게요. 자식새끼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  
 ㉢ **아주머니 3**: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쫓쫓.

털보네 안방  
 (등불이 가물거리는 어두운 방. 털보와 털보 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털보 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없는 살림에 입만 자꾸 늘고……. 어떡해요, 앞으로…….  
 ㉤ **털보**: 걱정 말구려. 저 먹을 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잖소.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놈, 참 잘도 자네. 이놈이 다 자랐을 때면 세상도 달라져 있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 ②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③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 ④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⑤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28:32 (5,1,5,3,4)

(가)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맘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  
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구조도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지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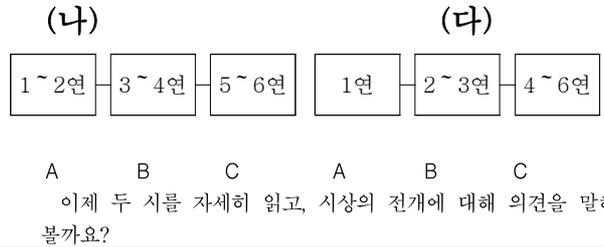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납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4.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승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5.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얼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56:60 (2,2,3,3,5)

(가) 드림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메이기는 하였으나 강릉쪽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달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꿎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 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꼬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족으나 보름을 가계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A]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라) “장 선 쪽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 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기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체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러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체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마)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터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15:19 (1,2,2,4,4)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레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란 할 것이다.

응오는 응오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었고 털기까지 하려면 그는 ㉡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뻔쩍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뒀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하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 졸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음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싶는데 빈 지계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얼얼기 짝이 없는 노릇이였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얼치고 덜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였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A]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하면 빗쟁이들은 우— 물려들 거니깐.

응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철이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였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뒀을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립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응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지 않아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뭇지 형질이 가리였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뵤이 뺑소니를 ㉢ 놓는다.

그러자 응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 무서운 침묵이였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핵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 장리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 도지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색초 :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구조도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응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응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ㄴ. 응철이는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ㄷ. 응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ㄹ. 응철이는 눈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ㅁ. 응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② ㄱ, ㄹ에서 응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 ⑤ ㄹ, ㅁ은 응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실한 농군’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 ④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 ⑤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5.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알아주는
- ② ㉡: 태우며
- ③ ㉢: 갚을
- ④ ㉣: 거칠게
- ⑤ ㉤: 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37:43 (4,1,4,1,2,5,3)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별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  
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  
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  
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일이 날아간다. 유위전  
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  
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세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  
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  
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  
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  
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  
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  
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  
던이 있고 밭을 췌는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  
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 ㉠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  
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A]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되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B]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울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 흥가.

[C]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제(玩樂齋) 소쇄(瀟灑)하니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에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널리 뜨슴 흥고.

[D] 청산(靑山)은 옛제 하니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 하니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하니라.

[E] 우부(愚夫)도 알며 하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하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구조도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현상에 얽매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11. (나)의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跋文)을 써 준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지훈의 글에 부처

나의 제자인 지훈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오랫동안 왕래가 소원하던 중 자신이 지은 글을 한 편 가져와 나에게 발문(跋文)을 청하기에 읽어 보니, 내용과 뜻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1. [ ]
2. 아마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금 나는 늙어 향리로 돌아와 한가롭게 살고 있지만, 제자의 깊은 뜻이 담긴 글을 틈틈이 대하며 소일거리로 삼겠노라.

갑신년 늦가을에 도산 노인 쓰다.

- ① 세상살이에 변화와 굴곡(屈曲)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②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 ③ 홀몸이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리 곤궁(困窮)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④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좇아가되, 즐김과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삶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하나 지훈은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志操)를 잃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후세들도 그 성정(性情)을 따르기를 바란다.

12.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문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13. (가)의 내용으로 볼 때,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 ②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 ③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
- ④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
- ⑤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

14.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물로 보이고, [D]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로 보여.
- ②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 ③ [C]의 ‘낙사(樂事) | 무궁(無窮)’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있고 학문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 ④ [D]에서 말하는 ‘그치지 마라’의 내용은 [C]의 ‘만권생애(萬畵生涯)’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
- ⑤ [E]의 ‘우부(愚夫)도 알며 허거니’는 [B]의 중장처럼 누구나 ‘어진 인성(人性)’을 지니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15.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덕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등에 일 업슨 너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그리라.  
- 성혼 -
- ③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혼노라.  
- 윤선도, 「만흥 1」 -
- ④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 혼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못 볼 것가.  
- 정극인, 「상춘곡」 -
- ⑤ 그울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뷘것거든 병(甁)의라 담겨서라.  
빈곤(貧困) 혼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논가.  
- 박인로, 「누항사」 -

16.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피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51:56 (2,1,4,5,4,3)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달]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觸樓)\*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운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들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 그리하여 지나긴 겨울 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지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삽한즉: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구조도

<p>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li> <li>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li> <li>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li> <li>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li> <li>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li> </ul> <p>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li> <li>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li> <li>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li> <li>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li> <li>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li> </ul> <p>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li> <li>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li> <li>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li> <li>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li> <li>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li> </ul>	<p>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li> <li>② ‘공산 축무’,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li> <li>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li> <li>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li> <li>⑤ ‘침번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li> </ul> <p>5.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li> <li>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li> <li>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li> <li>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li> <li>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li> </ul> <p>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li> <li>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li> <li>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li> <li>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li> <li>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li> </ul>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20:23 (1,1,1,3)

앞 부분의 줄거리 :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외딴 섬에 버려진 최치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에게 글을 배운다. 최치원이 12세가 되었을 때, 중국 황제가 신라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함에 달걀을 넣고 봉한 다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어 시를 지어 올리라 한다.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리자, 중국 황제는 최치원이 장차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이려고 신라 왕에게 조서를 보내 중국으로 부른다. 최치원은 50자나 되는 기다란 모자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낙양 성문에 들어서니, 어떤 학사가 치원에게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어느 곳에 매달려 있는가?”  
 하니, 치원이 말했다.

“산과 내는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느 곳에 실려 있는가? 당신이 땅이 실린 곳을 말하면 내가 하늘이 매달린 곳을 말하겠소.”

이에 학사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황제가 최 문장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이고자 삼문(三門) 안에 몇 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를 판 후, 악공들을 그 안에 매복시키고 경계하여 말했다.

“만약 최 문장이 들어오면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하여라.”

또 사문(四門) 안에는 ㉓장막을 설치하여 코끼리와 사람의 장막 안에 매복시킨 다음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느린 걸음으로 궤문에 들어서니 쓰고 있던 모자가 문 꼭대기에 닿았다.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㉑ “비록 우리 소국의 궤문이라도 내 모자가 닿지 않았건만 하물며 대국의 궤문에 내 모자가 닿는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들어가지 않았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하며 즉시 궤문을 부수게 한 언후에 치원을 다시 불렀다. 치원이 궤문을 지나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지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치원이 즉시 청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그쳤다. 삼문에 들어서니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흰색 부적을 던지자 그 소리가 곧 그쳤다. 사문에 들어서니 흰 코끼리가 장막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치원이 황색 부적을 던지자 그 부적이 변해 누런 별이 되어 코끼리 입을 둘러싸니, 코끼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황제는 치원이 여러 문을 아무런 탈이 없이 태연하게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

“이는 진실로 천지(天地)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치원이 오문(五門)에 들어서니 학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 서로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다. 치원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직 시를 지어 주었는데, 순식간에 많은 시를 지었는지라 학사들이 그 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사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했다.

치원이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이내 인사말을 마치고 황제가 물었다.

“경이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소?”

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알고 시를 지었소?”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무릇 현자는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이라도 통달해 안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함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 짓는 것쯤 못하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마음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고 또 물었다.

“경이 삼문 안으로 들어올 때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소?”  
 치원이 대답하길,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삼문 안에 매복해 있던 악공들을 불러들여 꾸짖으니, 악공들이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 청의와 백의를 입은 자들 수천 명이 와서 우리를 묶으며, ‘대빈(大賓)께서 오시니 음악을 연주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에 감히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니 구덩이 안에는 큰 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가 감탄하여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㉒장막을 쳐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시중 드는 관리들을 배치하는 등 모두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구조도

※ 위 작품의 서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20번과 21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공간	사건	장애물	해결 수단
신라 이전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중국으로 가다.		
↓			
낙양 성문	어떤 학사와 수수께끼 대결을 하다.	수수께끼 ↔ 수수께끼	
↓			
궐문	궐문을 부수게 하다.	궐문 ↔ ㄱ	
↓			
삼문(三門)	구덩이 안 악공들을 제압하다.	음악 소리 ↔ ㄴ	
↓			
사문(四門)	코끼리의 위협을 막아 내다.	흰 코끼리 ↔ ㄷ	
↓			
오문(五門)	학사들의 질문을 물리치다.	질문 ↔ ㄹ	
↓			
황제 이전	황제의 거처와 같게 하다.		

17. 해결 수단의 ㄱ~ㄹ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ㄱ	ㄴ	ㄷ	ㄹ
① 50자 모자	구렁이	누런 별	시	
② 50자 모자	누런 별	시	용상	
③ 구렁이	악공	50자 모자	누런 별	
④ 구렁이	50자 모자	용상	시	
⑤ 누런 별	악공	용상	구렁이	

18.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버려진 영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② 대국에 대한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 ③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다.
- ④ 학식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 ⑤ 개인이 부당한 위협에 맞서 가는 과정이다.

3.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신기한 계책은 천분을 환히 알고	神策究天文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戰勝功既高
만족할 줄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知足願云止
- 을지문덕,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 ① 상대를 높이는 듯하면서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② 사실을 과장하여 상대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있다.
- ③ 체치를 발휘해 상대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웅적인 기개로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4. 황제가 최치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과 ㉡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은 열등감을, ㉡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 ② ㉠은 보호의 효과가, ㉡는 은폐의 효과가 있다.
- ③ ㉠은 시험의 의미를, ㉡는 예우의 의미를 띤다.
- ④ ㉠은 상대에 대한 포용을, ㉡는 회유를 뜻한다.
- ⑤ ㉠은 상대에 대한 위협을, ㉡는 용서를 뜻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41:45 (4,3,3,4,1)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푸루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얼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쭉움쭉하니 정욱(程  
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  
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  
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  
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  
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  
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  
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  
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鵲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  
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앓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턴고. 귀촉도 귀촉도 불어귀  
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혼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탕 소탕 저 흉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빼죽 입빼죽 저 빼죽새. 자칭 영  
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  
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라, 병에  
좋다고 쑥국 쑥쑥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  
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  
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  
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  
(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형산백옥 같  
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  
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  
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  
르는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  
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땡기령 배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땡기령 배고, ㉤ 백송골이 꿩 차듯, 두  
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  
이라.

-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  
사(軍師).

구조도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들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맹(솔똥경)’이나 ‘솔이 텅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쑥 쑥쑥’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13:18 (5,3,1,2,2,3)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날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구조도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2.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의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28:33 (1,3,2,2,4,4)

(가)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  
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  
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뒹  
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정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A]

구조도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이'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었군.

4.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림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제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제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재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47:50 (2,5,5,2)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즐거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 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썩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출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얽은 적막감도 셋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혼침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 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휘발이가 등장하는 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똥똥 울렸다. 쩌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문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패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출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호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옹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 이번에도 내가 녀들 체면 깬 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구조도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궤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2.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출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출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출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 ③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 ④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4. ㉠와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예술은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②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 ③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
- ④ 예술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⑤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수능 20:23 (3,2,2,3)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A]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며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 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 아이었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B] 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폼다. ㉡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 나란 높은 아마 알 수 없는 농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 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건 못 되지 않는다.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욱, 「역사(力士)」 -

구조도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3.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27:30 (2,3,4,1)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 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나?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다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속속\*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흥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

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까.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봉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속속: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구조도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위 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무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말은 바 소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4. 독자의 입장에서 ㉤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수능 47:50 (2,5,1,4)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심욕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삼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덕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모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전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계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운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변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醵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전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구조도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해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경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

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4.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수능 37:39 (3,5,3)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물러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랐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쥐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쟁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큰 소리여? (㉢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 니, 큰 소리여? 엉?

연철 (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 엉?

연철 (치절하게) 빛에 짝 잤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 나 남고……. (절규하듯) 큰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전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부서 폐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쥐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안!

임제순 곰치!

곰치 (넋 빼고 서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떨쩍 뛰며) 왔다!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애절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뺏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여!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빛 갓지람너!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세요! 제발!

임제순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먼!

- 천승세, 「만선」 -

구조도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배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배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수능 37:39 (1,2,3)

**#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겁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글 웃고) ……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뵈 가족이 고기를 썰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 95. 불이의 집**

㉠ 광장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있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 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접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

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접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 96. 고급 댄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모양새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구조도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화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화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화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화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2.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3,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치를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